

광주·전남 대학 탐방

☞ 동신대 '동신리더' 선발

등록금·기숙사비·해외연수 혜택

수능이 끝나면 대학가는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또는 복수합격자를 경쟁 대학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쟁을 벌일듯 하는 유치전을 치르게 된다. 대학들이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장학제도. 많은 대학들이 전액 장학금 등 뛰어난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중 동신대의 '동신리더'는 파격적인 혜택과 체계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단연 손꼽힌다.

매학기 240만원까지 학습보조 장학금
인성 강화 프로그램·리더십 훈련 참여

타 대학의 장학제도가 입학 및 재학생 가운데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반해 동신리더는 신입생 모집부터 별도의 전형을 신설해 30명을 선발, 눈길을 끌고 있다.

동신리더에 선발되면 성적에 따라 최단 3년에서 최장 6년(한의예과)까지 등록금 전액과 최고급 기숙사인 인재육성관 기숙사비 및 식비 전액을 면제받는다. 또 매학기 최저 90만원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학습보조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해외연수와 교내 헬스피아 및 골프연습장 무료 이용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 UCLA에서 동신리더 해외연수가 진행됐었으며, 올 겨울방학에도 미국 UCLA에서 해외연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동신리더의 가장 큰 장점은 체계적인 학습 성과 관리를 받는다는 점이다. 개인별 지도교수제도가 철저히 운영되고, 매월별·학기별·방학중·연도별 학습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 받는다.

매일 오전 8시 인재육성관에서 운영하는 영어 토의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토의 등 소정의 점수에 도달했을 경우에만 해외연수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해주고 학점, 생활관리 등을 통해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동신리더 혜택을 중단한다.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 만큼 동신리더들은 의무적으로 인성강화 프로그램과 리더십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동신대학교는 학생들이 단순히 경쟁력을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회의 리더로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육지도자로서의 인성과 덕목을 지도하고 있다.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된다.

대학 학생능력개발처에서 시행하는 취업캠프와 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진로지도 교양과목 수강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쌓게 된다. 또 방학을 통해 동신리더 캠프에



2009학년도에 선발된 동신리더들. 동신대는 2010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 동신리더 전형을 별도로 신설, 3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기숙사비, 식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줄 예정이다.

참여해 전문 강사들로부터 최근의 면접 동향을 소개받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천 능력을 쌓는 기회도 갖는다.

이런 일련의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좀 더 빨리 실현시키도록 하고 있다. 막연하게 꿈 꾸던 미래에 대해 스스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게 하고, 생활지도와 학습성과 관리를 통해 꾸준히 성취해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고 있다.

동신리더 제1기로 선발돼 3년째 동신리더 혜택을 받고 있는 김효정(스튜어디스학과 3학년)학생은 "등록금은 물론이고 기숙사비, 식사비까지 전액 면제받으면서 학습보조 장학금까지 추가로 받으니까 어떠한 구에도 받지 않고 편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막중하게 생겨나고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신대학교는 올해까지 1학년 재학생 가운데 수능 성적 우수자와 토의 등 외국어 성적 우수자 가운데 면접을 거쳐 동신리더를 선발했었으나 2010학년도부터는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선발 과정에서부터 동신리더 전형을 별도로 신설했다.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30%, 학교생활 기록부 30%(교과 20% + 비교과 10%), 면접 30%, 인성 10%를 적용해

선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상위2과목 평균)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7'이내이거나 토의 60점 이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면접에서는 기본소양과 전공영역 비중이 75%, 인성검사가 25% 적용되는 데 기본소양은 지원동기와 기본인성, 태도, 표현력 등을 고루 반영하고, 전공영역에서는 전공 학업 수행능력을 점검하게 된다. /채희희기자 chae@kwangju.co.kr

“실력·인성 겸비한 글로벌 인재육성”

취임 3주년 맞는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름다운 품성 교육이 이뤄진다"는 게 자신의 교육 철학"이라면서 "웃는 얼굴, 고운 말씨, 바른 인사 등 친절 3운동은 바른 인성과 풍부한 감성을 갖춘 인재육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시책"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년간 '실력 광주'를 전국에 충분히 알린 만큼 남은 일기에는 실력과 인성, 창의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년간 수능 전국 1위" 등의 성과를 통해 '실력 광주'의 명성을 전국에 알린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이 7일로 취임 3년째를 맞는다.

안 교육감은 5일 시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학생들이 전국 최고의 실력을 갖췄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국내 뿐 아니라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 광주의 실력을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고 광주의 교육 행정을 자평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실력 광주'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자는 학생의 입장으로 되돌아가 그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지난 3년간 학생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해결상 교체를 시작으로, 화장실, 운동장, 강당 등의 순으로 학교시

설을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 시교육청은 안 교육감 취임 이후 3년 동안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에 모두 6천 300여 명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이전 3년 대비 5배가 넘는 예산 규모다.

이 기간동안 전 학교에 냉·난방기 설치를 완료하고 교육연수원, 유아진흥원 신설, 광주과학고 이설 등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1천여원이 넘었던 부채를 모두 털어냈다.

안 교육감은 "학생 위주의 교육을 한 덕분에 광주 학생의 실력이 5년 연속 수능 전국 1위에 올랐고, 1, 2등급 비율 1위, 4년제 대학 진학률 1위 등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외국어 설립과 관련해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지만, 내년에는 의욕을 갖고 추진해 놓어도 2012년에는 개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또한 "아름다운 학교에서 아

이와함께 안 교육감은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기초·기본학력 책임제"를 통해 인재육성에 역점을 뒀는데, 각종 교육 지표에서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어교사 원어민화 사업'도 성공시책 중 하나다.

정규수업시간에 투입되는 원어민화상센터는 광주 영어교육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으며, 영어교사의 실력을 원인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원어민화 사업은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캠퍼스 소식

광주여대 하계 해외봉사단 결과 보고회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정원)는 지난 3일 오후 교내 정보통신관 세미나실에서 2009년도 하계 해외봉사단 결과보고회 행사를 가졌다. 광주여대는 재학생 4명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해외봉사단원에 선발됐으며 러시아(한대영 스튜어디스학과), 인도네시아(남아리 스튜어디스학과), 인도(김빛나 중등특수교육과), 우간다(이신혜 물리치료학과)에 각각 1명씩 파견돼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해외봉사단은 봉사활동 기간 중 태권도, 컴퓨터 교육, 한글교육, 위생교육 등의 교육봉사와 학교 시설물 개보수, 벽화작업, 이·미용 봉사 등의 노력봉사를 수행했으며 가정방문, 대학탐방, 한국 전통문화 소개 등의 문화교류에도 적극 참여했다.

서강정보대 내일 무등산 사랑 캠페인

서강정보대학(총장 김정수) 소방안전관리과는 7일 오전 9시부터 무등산 중심사 일원에서 산불예방 전시회와 무등산 사랑 캠페인 등을 벌인다.

이날 행사는 '소방의 날'(11월9일)을 앞두고 무등산을 찾는 주말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요령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3년 화과 개설 이래 17년 연속 호남지역 대학 중 최다 소방공무원을 배출하고 있는 서강정보대학 소방안전과는 교수와 학생 80여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화재·소방 관련 사진 전시회, 화재예방 요령·초기진화 방법 등 산불예방 리본 달아주기, 자연친화 활동 등 '생활 속 소방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채희희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광주영어방송

영어교육 발전 협력 MOU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영어방송(사장 김원익)은 5일 오후 시 교육청 상황실에서 광주영어 교육 발전과 학생 영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협력 MOU를 체결했다.<사진>

협정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외국어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외국어 교육사업 상호 교류, 각급 학교 영어 관련 행사 지원, 학생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협력 등을 하기로 했다. 또 광주영어방송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학교와 가정에서 영어방송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프로그램 발굴, 다양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난 4월 개국한 광주영어방송은 FM98.7MHz, 1kW의 송신출력으로 광주 일원과 전남 11개 시·군 지역에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매일 21시간씩 전파를 내보내고 있다. 홈페이지(www.gfn.or.kr)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다. 김원익 광주영어방송 사장은 "광주 학생들이 광주영어방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Daedong, Sangmu, Gamsan, Hanil, and Gmh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property details.